

하늘높이 떠올리자! 승전의 개가를 만방에 높이 올린 선군조선의 장한 딸들을!

20여만의 평양시민들 2015년 동아시아 축구련맹 여자동아시아컵경기대회에서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한 여자 축구 선수들을 연도에서 열렬히 환영

【평양 8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백두의 혁명정신, 위대한 조국수호정신으로 10월의 대륙전장을 향해 온 나라가 폭풍처럼 내달리고있는 시기에 천만군민의 심장을 격동시키는 경사가 났다.

2015년 동아시아축구련맹 여자동아시아컵경기대회에서 편전패승으로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하고 세계의 장광높이 람홍색 공화국을 보란듯이 휘날린 우리의 장한 딸, 선군조선의 빨치산녀전사들이 조국으로 돌아왔다.

2013년 동아시아여자축구경기대회와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여자축구경기에서 편이여 우승하여 세인을 놀래운 우리의 여자 축구선수들은 이번 경기대회에서 맞닿은 일본, 중국, 남조선팀들을 통쾌하게 눌러버린 영예의 우승컵을 거머쥐고서 당과 조국, 인민의 기대에 훌륭히 보답하였다.

국제체육무대에서 경이적인 체육신화를 창조함으로써 태양조선의 존엄과 영예,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기상과 위용을 만천하에 파시한 당과 수령의 총지휘 체육전사, 조국과 인민의 장한 딸들의 혁혁한 위훈은 조국해방 일흔돐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에 드리는 애국총동의 고귀한 선물이며 영웅조선의 전승신화를 빛내인 또 하나의 정취이다.

10일 2015년 동아시아축구련맹 여자동아시아컵경기대회에서 우승한 미더운 우리 여자 축구선수들을 맞이하는 혁명의 수도 평양은 명절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여자 축구 선수들의 승전소식이 너무나 기쁘시여 최상최대의 사랑과 믿음을 어린 축하전문을 보내주시는데 이어 나라일예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비행장에 나오시어 직접 따뜻한이 맞이하신 격동적인 소식에 집한

평양시민들은 우리의 체육전사들을 하늘높이 떠받들어주시는 자애로운 원수님의 대대같은 은정에 목이 매여 눈시울을 뜨겁게 적시었다.

조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역에서 승전고놀이 올리고 돌아오는 우리의 장한 딸들을 맞이하게 된 수도의 거리마다는 각계층 시민들의 환영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평양국제비행장으로부터 편뚝뚝, 뚝뚝거리, 개신문거리, 창전거리 등에 이르는 연도는 손에손에 공화국기와 꽃다발, 고무 풍선을 들고나온 20여만의 평양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거리들에는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세차게 일으키자!》, 《2015년 동아시아 축구련맹 여자동아시아컵경기대회에서 선군조선의 기상을 떨치고 돌아오는 여자 축구선수들을 열렬히 환영한다!》 등의 구호문들이 세워져있었고 람홍색공화국들이 나뭇기고있었다.

나라들사이의 정신력과 체육기술의 대결장인 국제경기무대에서 당이 안겨준 담덕과 배짱으로 싸워 조진여자축구의 위력을 떨친 선수들을 열렬히 환영하는 시기를 기다리며 수도시민들은 흥분된 심정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국제경기장에서 선군조선의 영예를 높이 떨친 체육인들을 애국자, 영웅으로 내세워주는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긴 첫 순간 오빠에도 그리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랑의 축복을 받아안은 무한한 감격에 휩싸인 선수들을 태운 배스가 평양국제비행장을 떠나 순안구역 인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시내로 향하였다.

전승세대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 언제나 백승만을 떨치는 선군조선, 태양민족의 불멸의 위용을 구가하며 《가리라 백두산으로》, 《승리는 대를 이어》 등의 취주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우리 여자 축구선수들을 태운 배스가 번뜻번뜻이 이르자 조국과 인민의 끝없는 축하의 마음들이 그대로 꽃수레를 이룬 대형무개차가 그들을 기다리고있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공화국기가 그려져있고 송이송이 아름다운 꽃들로 단장된 대형무개차가 출발하자 또다시 환영의 파도가 세차게 물결쳤다.

《장하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등의 환성이 수도의 하늘가에 메아리치고 거리들에는 축하의 꽃다발, 기쁨의 송물결이 펼쳐졌다.

세계여자축구를 다시 한번 휘흔들어놓은 축구장자들에게 서성구역안의 남녀군로자들이 너도나도 달려나가 꽃다발과 꽃무걸이를 안겨주며 경기성과를 열렬히 축하하였다.

《장하다, 정말 통쾌하다! 참으로 불만하다!》, 《우리 여자 축구선수들이 제일이야!》 등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찬란의 목소리와 어디 한번 안아보자, 손이라도 잡아보자며 서로서로 키돋음을 하면서 반겨맞는 사람들.

조국의 영예를 떨친 오늘의 예쁜이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가까이에서 보고싶고 가슴에 새기고싶어 끝없이 설레이는 군중들의 환영의 꽃물결에 실려가며 선수들은 경기대회의 전기간 패보를 기다리며 잠들지 못했을 조국과 인민의 기대와 열연의 정을 다시금 뜨겁게 느꼈다.

정말 으뜸에는 매일과 같이 기쁜 소식만 전해들는다. 옛그제는 제16차 국제수영

련맹 세계선수권대회 물에뛰어들기 여자 10m고정관경기에서 우리의 나이던 김국향 선수가 단연 제1위를 쟁취하여 온 나라를 기쁘게 해주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우리 여자 축구선수들이 승전하였다.

국제무대에서 또다시 람홍색공화국을 창공높이 휘날림으로써 선군조선의 영웅적 기상을 남김없이 파시한 선수들을 금방석에 앉히고 떠받들고싶다.

이것은 비단 김경태경기기관차환합기소 로동계급의 심장만이 아닌 온 나라 전체 인민의 사랑과 정이 넘친 심장의 목소리였다.

《장하다, 주체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에 떨친 승리자들이여》

우리 식의 위대한 경기방식인 빨치산 공격전법으로 맞닿는 강림들과의 대결을 승리로 이끈 득점명수 주장 라은실선수.

일본팀과의 첫 경기에서 상대팀 방어진을 연이여 허물고 두골을 성공시켜 승리의 물과를 열여놓은 리예경선수와 멋들어진 팔로 팀의 승리에 크게 이바지한 위정심, 김윤미, 윤송미선수들.

가리라는 인민의 마음, 잠뜨는 조국의 밤을 안고 우리의 장한 딸들이 화선에 나선 육탄육사마냥 달려고달린 경기장은 그대로 조국의 명예를 건 결전장이였기에 그들이 오면 시상대는 정녕 전하의 나날 승리한 고지들에 울려 퍼지던 영웅세대들의 승전고를 끝없이 울려가게 하는 금지높은 단상이었다.

백옥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곳곳이 이어 나가는 인민의 영광이 하늘땅에 차넘치는 속에 여자 축구선수들이 탄 꽃수레가 서성구역, 대성구역 근로자들의 환영을 받으며 뚝뚝거리에 들어섰다.

경쾌하게 울리는 음악에 맞추어 만경대

구역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열렬적으로 송을 추고 꽃송이와 기발을 흔들면서 맞아주었다.

불굴의 정신력과 높은 축구기술, 완강한 투지와 비상한 단결력으로 남조선팀과의 경기에서 영웅조선의 기상을 남김없이 파시한 그들의 앞길에 꽃보라가 뿌려졌다.

끝없이 물결치는 환영의 파도를 헤가르며 차행렬은 개선문으로 향하였다.

백두산 줄기줄기, 압록강 굽이굽이에 피어 어린 자옥을 새기시며 함일대진을 벌리시어 잃었던 조국을 해방하시고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전통을 마땅히 후손을 위해 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으로 빛나는 역사의 문으로 선군조선의 빨치산 녀전사들이 승전고놀이 들어섰다.

살림집들의 베란다와 창가들에서도 시민들이 손을 흔들며 승리의 웃음 함축 당고 꽃물결에 실려오는 선수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내었다.

여자 축구선수들을 맞이하는 군중의 환영은 차행렬이 천리마동상앞 연도에 이르자 더욱 고조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천리마의 역설 나뉘를 펼치고 빈리우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던 전세대들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의 새 승리를 이룩해가는 금지가 환영군중과 선수들의 열광마대에 넘쳐흐르고있었다.

조국의 장한 딸들을 뜨겁게 포용하는 각종 근로자들의 열정적인 환호를 받으며 차행렬이 창전거리로 들어섰다.

락방구역의 수심명의 로동자들과 청년학생들이 대형무개차에 올라 더없이 숭고한 정신과 고귀한 헌신으로 가슴마다에 빛나는 금메달을 달고온 선수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며 전무적인사를 보내었다.

언제나 따뜻한 단발머리를 기록처럼 날리며 경기장을 힘껏 달려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에 애국의 실천으로 보답한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꽃들을 뜨겁게 축복하며 김철주사범대학, 한덕수평양공업종합대학의 청년학생들이 《잘 싸웠습니다!》, 《축하합니다!》라고 목청껏 외쳤다.

인민극장앞을 지나 환영의 열파가 더욱 뜨겁게 굽이치는 속에 선수들을 태운 차는 만수대안덕으로 향하였다.

가장 경건한 마음안고 만수대안덕에 오른 여자 축구선수들은 탁월한 사상과 명도로 체육강국건설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해주시고 백두산대국의 앞길에 위대한 미래를 펼쳐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진성하고 위대한 수령님들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렸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과 넉넉을 받들어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는 자랑찬 승리의 보고, 영광의 보고를 안고 저희들이 왔습니다.

여자 축구선수들의 열광마대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혼을 심장에 새기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국제경기장에서 영웅조선의 경이적인 축구신화를 끊임 없이 창조해나감으로써 우리 나라를 체육강국으로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할 총정의 맹세가 어찌있었다.

평양시민들의 열정적인 환영은 보물문을 지나 천리마거리로 계속 이어졌다.

조선로동당의 미더운 체육전사, 조국과 인민의 자랑스러운 딸들을 축하하여 수도 평양에 펼쳐진 감격적인 화북은 백두의 넓과 기상, 불굴의 정신력으로 영웅조선의 승리의 개가를 세세년년 높이 울려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열의의 힘있는 분출이다.

